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으시여 정찰위성운용준비상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1월 24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으시여 정찰위성의 운용준비상태를 점검하시고 24일에 촬영한 항공우주사진들을 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정찰위성의 궤도진입후 62시간동안에 진행한 세밀조종내용과 위성의 현재임무수행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1월 2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0시 27분사이에 정찰위성이 조선반도를 통과하며 적측지역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 중요표적지역들과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진자료들을 구체적으로



10초사이에 정찰위성이 적측지역의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표적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시였다. 정찰위성이 10시 1분 10초에 촬영한 사진에는 부산시 남구 통호동에 위치한 군항에 정박해있는 미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도 포착되였다.

또한 평양시간 11월 25일 새벽 5시 13분 22초 정찰위성이 미국 하와이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의 해군기지과 호놀룰루의 히캄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들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1월 25일 오전 9시 59분 40초부터 10시 2분

료해하시였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정은 원수님께 11월 25일 오전 적측지역에 대한 촬영계획과 정찰위성에 대한 추가세밀조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또다시 찾으시여 11월 25일 오전에 촬영한 적중요표적지역에 대한 항공우주사진들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1월 25일 오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또다시 찾으시여

기술총국 직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격려해주시였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정은 원수님께 정찰위성의 정식임무수행착수를 위한 운용준비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정찰위성운용준비정형과 위성촬영자료들에 대하여 보고받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원수님께서 11월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11월 25일부터 28일현재까지 사이의 정찰위성 운용준비정형에 대하여 보고받으시였다.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관제수단과 체계에 의하여 정확히 진행되고있으며 1~2일정도 앞당겨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1월 25일 17시 56분

28초 이탈리아 로마시를 촬영한 자료와 평양시간 11월 27일 9시 17분 07초 태평양 팜의 앤더슨공군기지를 촬영한 자료, 기타 지역들을 시험촬영한 자료들을 보고받으시였다.

또한 평양시간 11월 27일 23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해군기지과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평양시간 11월 27일 23시 36분 25초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였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해군기지과 뉴포트 뉴스조선소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는 4척의 미해

군 핵항공모함과 1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1월 29일 2시 24분 50초 미국본토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해군기지를 촬영한 자료, 평양시간 11월 29일 10시 16분 42초 일본 오끼나와현의 가네나공군기지를 촬영한 자료, 평양시간 11월 29일 16시 36분 51초 에질트의 수에즈운하를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1월 29일 정찰위성이 시험촬영한 사진자료들과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관련내용들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1월 29일 2시 24분 50초 미국본토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해군기지를 촬영한 자료, 평양시간 11월 29일 10시 16분 42초 일본 오끼나와현의 가네나공군기지를 촬영한 자료, 평양시간 11월 29일 16시 36분 51초 에질트의 수에즈운하를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1월 29일 16시 36분 51초 에질트의 수에즈운하를 촬영한 자료를 보고받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1월 26일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함경남도 제55호선거구 제26호분구 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 꾸려진 선거장에 도착하자 꿈결에도 뵈고싶던 우리 원수님을 뜻깊은 선거의 날에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게 된 룡성로동계급의 감격과 환희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터져 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영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거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선거장으로 향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는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인 룡성 김충혁과 함흥시인민회의 대의원 직장 직장장 리철학, 함흥시 해안 나갈 선거표를 받으시고 함경남도 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 지배인 후보자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 3기계 구역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인



해안구역통계부 부부장 림철에게 투표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는 대의원 후보자들을 만나시고 이곳 로동계급과 함흥시인민들의 믿음을 항상 자각하고 높은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노력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며 인민의 권익과 요구를 옹호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 참다운 인민의 총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룡성의 로동계급과 함흥시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선거에 참가한 무상의 영광을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의 혁명주권을 굳건히 다지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민적의무를 다해 불같은 열의에 총만되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고있다.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1월 26일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룡성로동계급은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설비제작을 통채로 맡겨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판철에 매진분투하여 성능높은 대형압축기생산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당이 제시한 자립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룡성의 로동계급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기술혁신의 산아인 대형압축기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룡성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 경제의 주체화 실현에 기여하게 될 중요대상설비생산과정을 통하여 자기 힘과 과학기술력에 대한 자신심을 더욱 배가하고 패배주의,

기술신비주의에 된타격을 안건것이 무엇 보다 기쁘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힘있는 기업소인 룡성의 기세가 대단하다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영웅적인 전통이 맥맥히 살아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온 나라가 룡성에서 고조되는 전진기세, 투쟁기풍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데

서 전반적경제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기계제작공업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우리 당과 우리 국가, 우리 제도를 혁명적대고조로 억척같이 받들어온 룡성의 로동계급이 새로운 시대정신, 새시대의 천리마정신을 창

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선도해나가기라는 크나큰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 주신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충성과 애국으로 총만된 창조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올게 계획된 중요대상설비제작과제를 빛나게 결속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승리의 보고를 드릴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항공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련대를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항공절에 즈음하여 11월 30일 오전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영웅적인 인민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군사령부에 도착하시자 공군장병들은 사기의 뜻깊은 창립명절과 더불어 주체적인 인민공군의 강화발전사에 길이 빛날 무상의 영광과 최상최대의 특전을 받아안게 된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넘쳐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공군명에 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공군명에 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체 공군장병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비행사들이 향기로운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인 김광혁 공군대장과 정치위원인 엄주호 공군중장을 비롯한 공군사령부 군정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의심을 안고 맞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공군명에 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군사령관의 안내를 받으시며 작전지휘소와 작전방안연구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군사령관으로부터 적정보고와 공군의 작전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작전지휘 및 정황관리정보화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군사령부가 적정관리 및 지휘체계의 정보화, 현대



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공군이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중추, 실전경험이 제일 풍부하고 전투력이 강한 군종답게 작전지휘 체계현대화에서 계속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이나 위협에도 즉시적으로 강력히 대응할수 있게 공군의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와 전쟁수행능력을 만반으로 제고하는데서 나서는 작전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작전지휘소와 작전방안연구실을 돌아보신 후 항공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장병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장병들은 우리의 하늘초병들을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특전을 다 안겨주시며 우리 공군

이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무적의 군종으로 위용떨어나가도록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시는 위대한 령장,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리러 걱정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공군장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장구한 력사와 더불어 조국수호의 항로에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영웅적위훈을 새겨온 주체적항공무력의 명절을 열렬히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영용한 조선인민군 공군의 전체 비행사들과 지휘성원들, 관병들이 당과 혁명에 절대적으로 충실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와 승리의 전통을 이어 우리 조국의 맑은 하늘을 철용성같이 지키고 우리 국가와 우리 인민의 앞길에 더욱 영광스럽고 부강번영하는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데 계속 훌륭히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 충성하며 내 조국의 영광을 결사수호하는 하늘의 성새, 방패가 되어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을 굳건히 담보해나갈 억척의 맹세를 담아 공군장병들이 터치는 《김정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합성이 11월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오후 조선인민군 제1공군사단 비행련대를 축하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체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남다른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감격과 환희에 넘쳐 전체 비행사들과 공군장병들이 열광적으로 터쳐올리는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 원수님을 맞이하는 공군사단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공군의

주요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항공절을 기념하여 비행사들을 비롯한 부대장병들, 공군무력의 주요지휘관들과 건군사에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들을 남기시고 인민공군의 휘황한 앞날을 따듯이 축복해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감시소에 오르시여 비행사들의 시위비행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사들이 용맹하고 신속자재한 조종으로 각이한 전투기동비행술을 펼칠 때마다 뜨거운 답례를 보내주시며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부대의 비행사들이 그 어떤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맡겨진 공중전투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

정신을 명줄로, 숭고한 의무로 간직한 이런 비행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에 참가한 비행사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안겨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비행사들은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조국보위, 혁명보위의 항로만을 날으는 하늘의 불사조, 로동당의 붉은 매로 더욱 억세게 준비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항공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공군팀과 해군팀사이의 배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군종의 명예를 지키려는 선수들의 강한 승부심과 열기면 응원속에 시종 치열하게 진행된 경기에서는 공군팀이 해군팀을 3:0으로 이겼다. (4번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항공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련대를 축하방문하시였다



(3면에서 계속)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부대 문화회관에서 항공절에 즈음한 조선인민군 공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군협주단의 예술인들이 우리 비행사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감동깊게 펼쳐보인데 대해 치하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닭알에도 사상을 채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것이 우

리 당의 힘에 대한 론리이고 정의이며 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싸움의 승패여부는 무장장비의 전투적제원에 따라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아무리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적들이라 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압도할수는 없다고 확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비행사들을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당과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새겨안고 총성과 백승의 향토만을

이어나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불사조들로, 불굴의 혁명신념을 지닌 정신적최강자들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장병들이 앞으로 영웅적인인공군의 강대성을 높이 떨치며 무적의 힘으로 우리 당의 위업, 우리 인민의 리사회건설을 굳건히 담보해나가기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공군장병들과 함께 항공절을 뜻깊게 기념해주시고 공군발전의 휘황한 새 전기를 펼쳐주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고마움

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당중앙이 밝혀준 새시대 공군건설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에서 위대한 김정은공군의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펼쳐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이날 저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항공절을 경축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인 김광혁 공군대장, 정치위원인 엄주호 공군중장을 비롯한 공군사령부 군정지휘관들과 관하 사단, 려단장, 정치위원들, 련대장, 대대장

들, 비행사들이 초대되였다. 박정천 조선인민군 원수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길 조선인민군 차수,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연회에서는 박정천 조선인민군 원수의 연설이 있었다.

연회장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 공군무력강화의 최진성기를 열어가는 성스러운 려정에서 위대한 령장과 친위전사들사이에 맺어진 혈연적누대의 감동깊은 화폭들이 펼쳐졌다.



광홍색기발이 우리를 뒤덮은 기적과 변혁의 2023년

잊을수 없는 2023년의 마지막 12월이다.
지금 이 시각 감격과 충격의 연속으로 이어져온 공화국의 자랑찬 한해를 돌이켜볼수록 격동과 환희, 신심과 자부가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짙게 차려졌다.
공화국의 지나온 해들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히 올해는 광홍색공화국이 더욱 창공높이 세차게 휘날려온

위대한 변혁과 승리의 한해였다.
류례없는 도전과 중첩되는 시련을 뚫고 강용한 기상과 불굴의 정진력으로 위대한 전환과 변혁을 안아온 승리의 기쁨을 안고 승리의 언덕에서 공화국인민들은 국기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영광받던 2023년은 눈부신 그 광홍색으로 빛받친 한해였다.

휘날리는 국기-조선의 승리

해마다 그러하였지만 새해의 0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창공에 솟아오르는 국기를 바라보는 인민의 가슴은 왜 그토록 설렘이었던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하여 일흔다섯돌기를 새기는 뜻깊은 2023년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75년은 결코 길지 않다.
그러나 이 나날 공화국인민은 반만년이 줄수 없었던 영광과 행운을 받아안았으며 위대한 강국의 존엄을 인민으로 되어 승리와 기적의 년표를 아로새겨왔다.
이 지구상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을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불매의 핵강국으로 일떠세운 인민의 공지가 어리었던 광홍색공화국이 내 조국의 하늘가에 펄럭 휘날리었다.
- 눈부신 국기는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행복도 미

레도 찬란한 국기와 더불어 무궁할것이다.-
이 뜻깊은 그밤 창공높이 휘날리는 광홍색국기를 바라보며 공화국인민이 더욱 심장깊이 새긴 신념과 의지였다.
인민의 운명을 싣고 펄럭이는 국기를 응시하며 2023년의 뜻깊은 달과 달들에 무척의 열병대오, 철의 호를이 도도히 흘러갔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으로 세계를 진감시킨 공화국의 불매의 군력이다.
광홍색국기를 휘날리며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누버나간 정예부대와 로동적위군부대들,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의 실체들은 주체조선의 절대적합, 초강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어저 열병식뿐이던가.
올해에 공화국전력투력의 초강력대응태세를 시위하며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및 《화살-2》형,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우리식의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얼마전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등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를 특특히 알게 하여주고있다.

지금도 공화국기를 동체에 새긴 정찰위성이 온 행성을 굽어보며 우주만리에 치달아오르고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 바다에 진수되던 격동적인 화폭을 되새겨보며 우리 국가의 강대한 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어오르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조로 수뇌회담은 광홍색의 눈부신 빛발로 세계를 덮으며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더욱더 힘있게 과시한 또 하나의 뜻깊은 계기였다.
세계는 2023년의 날과 달을 보며도 강위력한 정치군사강국을 위엄떨치고있는 공화국이 평화와 번영의 새력사를 어떻게 써나가고있는가를 특특히 체감하고있으며 우리의 광홍색국기가 어떻게 지구의 중심에서 펄럭 휘날려가고있는가를 보고있다.
공화국은 올해에 광홍색국

기를 휘날리며 자립, 자강의 위력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중에서도 첫번째 고지인 농업부문에서 테넨에 없는 호모한 풍작을 안아온것은 2023년에 공화국인민이 이룩한 성과중의 성과이다.

은 나라의 농촌들마다에 눈이높이 쌓여진 풍년로작가리, 그앞에서 휘날리는 국기를 우러르며 기쁨에 겨워 북과 팽파리를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농장원들의 모습, 이는 자기 힘으로 부강번영의 새력사를 써나가는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더없는 행복감의 분출이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온 나라 아이들이 산뜻한 새 교복과 학용품을 받아안았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육아정책에 의해 타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젓제품이 공급되었으므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가의 새로운 법률과 시책들이 채택되었다.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승리의 게가가 높이 울려나오는 속에 조로수뇌회담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원대한 리상이 응축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선경마들이 후후

죽순처럼 일떠서 흥겨운 새집들이공영이 련이어 펼쳐졌다.
그런가 하면 올해 년초에 착공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강릉은실농장건설, 평양시 서포지구 새거리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 검덕지구에는 신약협곡도시의 눈부신 화폭이 펼쳐져 광홍색기발을 휘날리며 휘황찬란한

절세의 애국자, 천출위인을 모시여

승년의 언덕에서 광홍색국기를 바라보는 이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파도치고있다.

그것은 광홍색국기가 영원히 높이 휘날려가게 하려 온 한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절세위인의 거룩하신 영상이 어려어오기때문이다.

지난해 12월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2023년에 국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2년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새해의 목표달성과 새로 제시된 전담과제수행에 총매진함으로써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의 가르침이 전진하는 조선의 기치가 되고 온 나라 인민을 새로운 기적과 변혁창조로 불러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되었다.

미래를 향하여 강용히 전진하는 공화국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 땅위에, 이 하늘에 펼쳐진 이러한 눈부시고 환한 화폭들을 바라보며 공화국의 행로에 투기할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아로새겨진 2023년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공화국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격변하는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들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서 올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강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었을뿐 아니라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총진군의 진두에 서시여 천만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도에 의해 공화국의 절대적인 존엄과 무진막강한 힘을 대표하는 위력적

실체들이 위대한 국기의 빛발아래 태어났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오신 위대한 헌신의 령정은 또 얼마나 우리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젖어 들게 하는가.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공식과 서포지구 새거리건설공식에 몸소 참가하시여 뜻깊은 연설도 하시며 건설자들을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별천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힘있게 불리일으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도 눈에 어려어나.
강원도 안변군의 태풍피해지역들을 두차례나 찾오시여 침수된 농경지의 농작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문제들을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이, 바다물에 침수된 안석간석지에까지 나가시여 허리치는 감탕물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여 비이삭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석간석지를 찾오시던 그날로부터 이틀후에는 겹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나라의 농업발전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는 금성트랙도르공장을 찾오시여 탐으로 웃것을 적시시며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을 직접 움직여보시고 트랙도르도 운전해보시며 온 나라 전야를 우

리가 만든 농기계들로 딱 뒤덮게 할 의지를 굳히시었다.

정녕 위대한헌신의 길에 바치실것과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오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공화국의 국위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셨다.

이처럼 언제나 부강강행, 부흥번영을 위한 강행군의 진두에 서시여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공화국은 올해 엄혹한 극난속에서도 광홍색국기를 펄럭 휘날리며 가슴벅찬 승리를 청사에 아로새길수 있었다.
하기에 2023년 승리의 명마루에 서서 광홍색국기를 바라보며 공화국인민은 이렇게 웨친다.
이 한해에 광홍색국기가 더욱 기세차게, 더욱 창공높이 휘날리도록 해주시고 인민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입니다.

만고절세의 위인,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우리의 광홍색국기는 자주와 정의, 존엄과 승리, 영광과 행복의 기치로 창공높이 더욱 힘차게 휘날릴것이며 그 기치아래 공화국인민들은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인민, 제일 강대한 인민으로 명성떨칠것입니다.
본사기자 주일봉



인민을 위해 걸으시는 험한 길 흙먼지 날리는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더운 김을 물씬물씬 피워올리는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시원하게 펼쳐진 스키주도와 수상공원이며 눈이 부시도록 황홀하게 펼쳐지는 독특한 야경...

여기가 바로 죽내는 물론 세상에 소문이 자자한 산간오지에 자리잡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이다.

사시정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그칠새 없는 이 휴양지에도 절세위인의 숭고한 위대한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주제 107(2018)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흙먼지 날리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오시었다.

건설장일대를 돌아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로해하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우리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적

지 않은 대상건설을 진행하고있는데 현재 조건이 특별히 좋고 여유가 없고 풍족하여서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확고한 결심과 강렬한 의지에 의하여 만단을 무릅쓰고 일떠세우는 하나하나의 창조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는 천만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의 발걸음따라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이 인민을 위해 솟아났던가.

일군들에게는 두달전 8월의 그날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레년에 없는 폭염이 계속되어 숨쉬기조차 힘들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병치로도 하고 휴식도 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본보기 온천문화휴양지를 우리실구상을 안으시고 머나먼 밤길을 달리시여 양덕군을 찾오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날 우리 나라의 곳곳에는 주변 경치가 뛰어나고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로에 효과가 대단히 좋은 온천자원들이 적지 않지만 휴양 및 로양시설담겨 생문화적으로 온천하게 꾸러진 종합적인 봉사기지가 없다고. 며칠동안 여러모로 따져본 결과 그중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지로해하고 멋있게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하시었다.

전기가 어려운 무더위속에서 오랜 시간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종합편을 건설할 위치도 잡아주시고 야외온천도 할수 있게 실내욕탕뿐 아니라 야외온탕도 꾸리며 개별온탕, 대중온탕, 치료온탕 등

각종 온천욕봉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던 그이시었다. ... 일군들이 감회속에 잠겨있는데 그이께서는 흰 김을 문게문게 피워올리며 쉬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온천물을 보시고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온천물을 한동안 내려다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온천물을 맛보시겠다고 하시었다.

순간 모두가 당황해하였다. 로천의 온천물을 어떻게 그이께 올린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부름 드시고 몸소 온천물맛을 보아주시었다.

조건을 마련해주시려 크나큰 로고를 기울으신 절세위인의 헌신의 세제는 스키장의 삭에도 뜨겁게 어려웠다.

주제108(2019)년 12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뜻깊은 그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또 다시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스키종합봉사건물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스키장에 다시 가보라고 하시며 삭도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몇번 시운전이나 해본 삭도에 경애하는 그이를 모실수 없다고 생각한 한 일군이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었다.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동무들이 시운전을 열번 하였고 하여도 내가 한번 타고 올라가는것만 못하다고, 인민들은 내가 삭도를 타고 올라갔

다는것을 알게 되면 더 마음을 놓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몸소 삭도에 오르시었다.

삭도를 타시고 스키장점으로 향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어저 스키장의 삭도뿐이랴. 땀알삼은 티와 왕의 주로라 일컫는 어린이스키주도 등 휴양지의 모든 구성요소마다에 이렇듯 세심한 사랑이 어려웠으니 정녕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헌신이 그대로 뜨거운 샘이 되어 펼쳐놓은 문명의 바다, 행복의 별천지인것이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어버이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을 전해두려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오늘도 사람들을 반겨맞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흥하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모습, 지방이 변모된다

— 올해 농촌진흥의 벽찬 현실을 체감하며 —

은 나라 농촌이 회멸과 신심에 넘쳐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의 두번째 해인 2023년에 공화국에서는 농촌진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감한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지방의 일꾼이 달라지고 흥하는 농촌의 새 모습이 펼쳐져 세인을 경탄케 하고있다.

약동하는 대지에 활력을 부어준 관계체계

은 나라 농촌의 그 어디서나 농업근로자들이 한결같이 터놓는 말이 있다. 올해에 새롭게 일신된 관계체계의 덕을 토틀히 보았다고, 진짜 농사에서 변혁이 일어나고있다는 진정의 토로이다.

나라의 관계체계를 정비보강하고 완성하는 사업을 대자연계조사사업으로 통이 크게 밀고나가야 하겠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시신 혁명적인 조치에 따라 관계공산자들이 방방곡곡에서 전격적으로 벌어져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올해 관계건설계획이 성과적으로 실행되었다.

20여만정보의 논밭관계체계와 중소차천들의 바다과기, 강령호담수화공사, 해안방조제연구화공사과제들이 기본적으로 결속, 특히가뭄피해를 심하게 받던 지역들을 위주로 6만여정보에 달하는 밭들의 관계체계를 일신...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고마움에 젖은 뜨거운 목소리들이 울리고있다. 지난 시기 물이 부족하여 알곡생산계획을 시련히 수행해본적이 없었던 산천군 효자농장에서조차 관계체계가 훌륭히 정비보강되어 울곡식농사에서부터 풍작을 거두었다. 지난해 심한

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눈부신 현실에서 온 나라 인민은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때부로 절감하고있다.

가물로 하여 농장원들이 총동원되어 수습정보의 포진에 물주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장에 올해에 정비보강되고 영구적인 관계체계를 통하여 생명수가 철철 흘러들게 되었을 때 누구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농장의 한 일꾼은 《이제는 영원히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를 짓게

기계 농사 좋다!

올해에 사회주의전야마다에서 현대적인 기계로 종결계 농사짓는 새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지난 10월 태천군 송태농장을 찾은 우리에게 농장의 경리는 비로와 비닐박막을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충분히 보장받고 농부들은 기계들도 받아안은 올해는 농사를 짓는 보람을 한껏 느낀 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소형벼수확기가 농장원 10명을 대신하고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리용하니 탈곡능력이 두배로 늘어나 가을이면 로력문제때문에 고심하던 걱정거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기계로 나간다면 지난해보다 20여일이나 앞당겨 농사를 결속할것 같습니다.》

기계 농사 좋다!

한 연백벌의 농장들과 풍요한 가을을 펼쳐놓는 기쁨안고 난알털기를 본때있게 내밀고 있는 통천군과 함주군의 농장들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만나는 농장원들마다 《우리 농민들이 협하게 농사일을 할수 있도록 사랑의 기계들을 보내주시니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기계농사가 정말 좋습니다!》라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오늘과 같은 현실이 이렇게 빨리 펼쳐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배천군 역구도농장 기계화작업반 반장들의 토로에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뜨겁게 흘러 넘치고있었다.

은 나라 농촌을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기계들로 뒤덮고 농업근로자들이 기계로 농사를 종결계 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펼쳐시켜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지난해에는 황남에서 5 500대의 기계별명식이 마련되고 올해에는 각지의 농촌들에 수많은 기계들이 속속 가당했다.

지난 9월 군수공업,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수확기, 탈곡기, 파종기를 비롯한 1만여대의 기계들이 가을걷이와 탈곡,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로 들끓는 농장들에 집중수송되고있다는 소식은 농업근로자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었는가.

《은 농장이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오직 하나의 열망을 안고 뛰고 또 뛰고있습니다.》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한목소리로 터놓는 마음속진정이 우리를 더욱 감동시켰다. 이런 고결한 마음들이 사회주의전야마다에 뜨겁게 끓어오르고있기에 이 땅에서 만풍년의 노래소리가 세세년년 울려져지리라는 확신을 되새기는 우리의 눈앞에 풍년농사를 지은 기쁨과 자랑을 안고 결산분배모임을 하는 모습이 흐뭇하게 안겨왔다.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

이해의 가을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행으로 약동하는 풍요한 대지에 참으로 이룩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서해공작지대의 옥야천리와 동해안지대 그리고 북변의 산골농장 할것없이 온 나라의 수많은 농장들에서 최근년간에 볼수 없었던 높은 수확과 기쁨되고 황금나라를 펼쳐놓는 호뜻한 작황이 마련되었다. 얼마전에 우리와 만난 정수리 일대농장의 한 일꾼은 올해 농사에서 통장훈을 불렀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헌한 투쟁을 벌려 최고수확년도보다 정보당 11이상의 수출을 내내고 알곡생산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고 자랑을 펴놓았다.

평원군 원화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알곡생산목표정령을 올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

여대의 기계들이 가을걷이와 탈곡,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로 들끓는 농장들에 집중수송되고있다는 소식은 농업근로자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었는가.

《은 농장이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오직 하나의 열망을 안고 뛰고 또 뛰고있습니다.》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한목소리로 터놓는 마음속진정이 우리를 더욱 감동시켰다. 이런 고결한 마음들이 사회주의전야마다에 뜨겁게 끓어오르고있기에 이 땅에서 만풍년의 노래소리가 세세년년 울려져지리라는 확신을 되새기는 우리의 눈앞에 풍년농사를 지은 기쁨과 자랑을 안고 결산분배모임을 하는 모습이 흐뭇하게 안겨왔다.

은 한해 따물려 가꾸어 거두어들이던 난알털기를 결산분배장에 산같이 쌓아놓고 흥겨운 농악소리에 맞추어 어깨동실 두들실 춤을 추는 농업근로자들, 나라에 많은 알곡을 수매하고도 현금분배를 듬뿍 받아안은 자랑을 안고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라고 흥겹게 노래부르는 사람들...

어찌 이렇뿐이랴. 농장원이 들썩하게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진 결산분배장에서 풍년작황을 안아온 농업근로자들의 회결과 긍지에 넘친 모습을 가는 곳마다에서 볼수 있었다.

꽃피어나는 새 생활, 새 문명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화국의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경사가 련이어 펼쳐졌다. 지난 1월 평안남도과 황해

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경사가 난데 이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각지의

농촌마을들이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으로 새집들이하는 농업근로자들의 감격과 기쁨, 흥겨운 춤판으로 설레었다.

농업근로자들이 문명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 등장한 그 어디서나 새 생활, 새 이야기들이 꽃피어나고있다. 얼마전 산골막바지에 위치한 허천군 금창리에도 멋들어진 단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일떠섰다.

새집들이를 한 금창농장의 김병철분장장은 집은 물론이고 다른 집들에서도 친척들과 동무들에게 집자랑을 담은 전화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새집에 이사했는데 한 번 와보라고, 와보면 당의 은덕이 얼마나 큰지 그대로 알수 있다고...

그런가 하면 새 생활, 새 문명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소개하러 촬영가들도 금창리에 많이 찾아오면서 새집의 주인들을 말한다.

산천이 변하니 우리 금창리도 온 나라가 아는 고장이 되었다고. 연산군 공포농장의 봉원혁 분장장으로부터 결혼하기 전에 벌써 농장의 새 살림집을 배정받은 《부둥이》들이었다.

새 살림집과 더불어 이룰 가정에서는 날마다 넘쳐나는 복속에 웃음이 끊길줄 몰랐다고 한다.

어제날 처녀뜨락뜨락은 전수였던 그의 안해는 오늘날도 혁신자로 떠받들리고 있고 얼마전에는 귀여운 자식이 태어나 기쁨이 더욱 커만 가고있다.

희한한 새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펴고보니 너무도 꿈만 같아 집안팎을 보고 또 보았다며 신양군 인평농장의 김영국분장장은 말하였다.

《새집에 이사하는 날 나라에서 지어준 집을 더 멋있게 꾸려가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뜨락에 나가보니 옆집에서도 앞집에서도 자기 집들안을 알뜰히 거두고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경쟁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모임을 열고 집들안에 좋은 품종을 과일나무를 더 많이 심고 방에 화분들을 놓아 집안환경을 일신시키자고 토론했습니다.》

《은 농장이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오직 하나의 열망을 안고 뛰고 또 뛰고있습니다.》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한목소리로 터놓는 마음속진정이 우리를 더욱 감동시켰다. 이런 고결한 마음들이 사회주의전야마다에 뜨겁게 끓어오르고있기에 이 땅에서 만풍년의 노래소리가 세세년년 울려져지리라는 확신을 되새기는 우리의 눈앞에 풍년농사를 지은 기쁨과 자랑을 안고 결산분배모임을 하는 모습이 흐뭇하게 안겨왔다.

은 한해 따물려 가꾸어 거두어들이던 난알털기를 결산분배장에 산같이 쌓아놓고 흥겨운 농악소리에 맞추어 어깨동실 두들실 춤을 추는 농업근로자들, 나라에 많은 알곡을 수매하고도 현금분배를 듬뿍 받아안은 자랑을 안고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라고 흥겹게 노래부르는 사람들...

어찌 이렇뿐이랴. 농장원이 들썩하게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진 결산분배장에서 풍년작황을 안아온 농업근로자들의 회결과 긍지에 넘친 모습을 가는 곳마다에서 볼수 있었다.

꽃피어나는 새 생활, 새 문명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화국의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경사가 련이어 펼쳐졌다. 지난 1월 평안남도과 황해

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경사가 난데 이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각지의

농촌마을들이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으로 새집들이하는 농업근로자들의 감격과 기쁨, 흥겨운 춤판으로 설레었다.

농업근로자들이 문명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 등장한 그 어디서나 새 생활, 새 이야기들이 꽃피어나고있다. 얼마전 산골막바지에 위치한 허천군 금창리에도 멋들어진 단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일떠섰다.

새집들이를 한 금창농장의 김병철분장장은 집은 물론이고 다른 집들에서도 친척들과 동무들에게 집자랑을 담은 전화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새집에 이사했는데 한 번 와보라고, 와보면 당의 은덕이 얼마나 큰지 그대로 알수 있다고...

그런가 하면 새 생활, 새 문명의 주인이 된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소개하러 촬영가들도 금창리에 많이 찾아오면서 새집의 주인들을 말한다.

산천이 변하니 우리 금창리도 온 나라가 아는 고장이 되었다고. 연산군 공포농장의 봉원혁 분장장으로부터 결혼하기 전에 벌써 농장의 새 살림집을 배정받은 《부둥이》들이었다.

새 살림집과 더불어 이룰 가정에서는 날마다 넘쳐나는 복속에 웃음이 끊길줄 몰랐다고 한다.

어제날 처녀뜨락뜨락은 전수였던 그의 안해는 오늘날도 혁신자로 떠받들리고 있고 얼마전에는 귀여운 자식이 태어나 기쁨이 더욱 커만 가고있다.

희한한 새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펴고보니 너무도 꿈만 같아 집안팎을 보고 또 보았다며 신양군 인평농장의 김영국분장장은 말하였다.

《새집에 이사하는 날 나라에서 지어준 집을 더 멋있게 꾸려가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뜨락에 나가보니 옆집에서도 앞집에서도 자기 집들안을 알뜰히 거두고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경쟁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모임을 열고 집들안에 좋은 품종을 과일나무를 더 많이 심고 방에 화분들을 놓아 집안환경을 일신시키자고 토론했습니다.》

《은 농장이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오직 하나의 열망을 안고 뛰고 또 뛰고있습니다.》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한목소리로 터놓는 마음속진정이 우리를 더욱 감동시켰다. 이런 고결한 마음들이 사회주의전야마다에 뜨겁게 끓어오르고있기에 이 땅에서 만풍년의 노래소리가 세세년년 울려져지리라는 확신을 되새기는 우리의 눈앞에 풍년농사를 지은 기쁨과 자랑을 안고 결산분배모임을 하는 모습이 흐뭇하게 안겨왔다.

은 한해 따물려 가꾸어 거두어들이던 난알털기를 결산분배장에 산같이 쌓아놓고 흥겨운 농악소리에 맞추어 어깨동실 두들실 춤을 추는 농업근로자들, 나라에 많은 알곡을 수매하고도 현금분배를 듬뿍 받아안은 자랑을 안고 《이 많은 분배를 어디에 다 쓸가》라고 흥겹게 노래부르는 사람들...

어찌 이렇뿐이랴. 농장원이 들썩하게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진 결산분배장에서 풍년작황을 안아온 농업근로자들의 회결과 긍지에 넘친 모습을 가는 곳마다에서 볼수 있었다.

꽃피어나는 새 생활, 새 문명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화국의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경사가 련이어 펼쳐졌다. 지난 1월 평안남도과 황해

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농촌마을들에서 새집들이경사가 난데 이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각지의

농촌마을들이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으로 새집들이하는 농업근로자들의 감격과 기쁨, 흥겨운 춤판으로 설레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어릴 적부터 풍겨오는 향기

은 나라에 갔던 공화국의 한 녀성은 약간의 외상으로 하여 며칠간 치료를 받게 되었다.

바로 그 날이 그에게 그렇게 큰 충격을 주게 될 줄 미처 몰랐다. 조국에 돌아온 후 그는 자기의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

《병원에 들어서기 바쁘게 접수비도 요구하였다.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접수비를 내야 하였다. 눈약이나 넣어주고 약간의 처치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치료비를 요구할줄 몰랐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가 막힌것은 차사고를 당하여 당장 숨넘어갈듯한 사람을 치료비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광경이었다. 인정의 향기가 대지를 덮히는 우리 조국에서라면 과연 상상이나 할 일인가. 정말이지 그날처럼 조국이 그리운적이 없었다.》

인정의 향기.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는 말이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 예로부터 고기는 물속에 서 살고 사람은 인장속에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인정을 떠나 인간의 그 어떤 생활도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다. 마음속으로부터 서로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인정이야말로 사람들이 마음도 뜻도 같이하게 하는 인간관계의 소중한 뉴데가 아니던가.

그래서 인정에 목이 매고 인정에 산다는 말도 생겨났겠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남다른 인정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풍습으로 여겨온 인종은 민족이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가장 뜨거운 덕과 정으로 맺어지고있다.

건지 못하는 학생을 등에 업고 수년세월 학교로, 병원으로 다닌 교원들,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주고 자식없는 늙은 이들의 친자식이 되어주는 청년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처녀어머니》, 《총각아버지》들.

매일과 같이 태어나는 이런 미덕의 주인공들을 보며 사람들은 공화국인민들이 지닌 참으로 뜨겁고 깊은 인정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자기의 불행과 고통처럼 아파하고 남의 기쁨과 행복을 두고 자기의 기쁨과 행복처럼 여기는 이런 인종은 사람들을 파열된 어느 사회에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언젠가 한 해외동포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어머니, 오늘은 산에 놀러갑니다.) 하고 늙은 어머니를 짊어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은 줄 모른다. 자식들의 환대와 달콤한 말에 어머니가 취해있는 사이에 날은 어두워지고 자식들은 하나둘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사위는 캄캄해져 속속히 홀로 남은 어머니는 무섭증을 느끼며 아들이, 딸아 예라게 찾지만 잠깐 갖

다온다던 자식들은 그림자도 없다. 구원받을 길 없는 산속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것은 죽음뿐이다. 이것이 바로 《효도판광》의 본질이다.》

피폐지역에서 류행되고있다는 《효도판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글이다. 이렇게 자기 부모에 대한 정마저 사라진 인종의 동등에서 혈육도 아닌 남에게 바치는 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는가.

자기 하나의 리익밖에 모르는 차치한 인정의 세계는 먹다남은 밥과 김치가 있으면 좀 달라는 애처로운 부락조차 외면하여 한 녀성작가를 끌어내려 만들었고 동정의 손길을 내미는 로인들과 장애인들을 멸시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있다.

피폐지역뿐이 아니다. 장도도 먹지 못해 깔고 잔다는 민간이 류행되고 오늘의 과제는 인간성을 되찾는것이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나라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가.

《고도문명》을 떠드는 요란한 광고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지는 인종세계를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는 맹목한 현실은 공화국인민들로 하여금 덕과 정이 사회되는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조국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고있다. 인정의 향기. 진정한 것이야말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풍길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연선

신문에 실린 두 기사를 보며



며칠전 출근길에서였다. 지하철도의 개신역에 들어서니 신문기시판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짚고있었다. 호기심에 끌려 저도 모르게 다가보니 신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보도가 실려있다. 흥분된 심정으로 기사의 글줄을 읽어가던 나의 눈에 다른 지면에 실린 피폐지역에서 벌어진 시위 투쟁과 관련한 글과 사진들이 안겨왔다.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여 서울의 거리와 광장을 메우며 진행된 각계층의 제6차 촛불 집회와 시위투쟁에 대한 보도였다. 우리의 주권을 반석같이 다져 인민의 내 나라를 길이 빛내일 강렬한 열망의 결과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를 보도한 기사와 는 너무도 대조되는 피폐지역에서의 반 《정부》투쟁소식. 자기 제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긍지에 넘쳐있는 공화국인민들의 회례에 넘친 모습과 잘못 선택한 《정권》에 대한 때늦은 후회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다함없는 애고마움과 자기 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 의지를 안고 선 지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나의 뇌리에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투쟁의 풍경이 생생히 떠올랐다. 기다리고기다린 경사로운 선거 날 공화국의 그 어디나 경축일색으로 단장되고 누구의 얼굴에도 환희가 넘쳐있지 않았던가. 투표시작전부터 선거장앞에 출마다. 노래바다가 펼쳐지고 모두가 자기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원후보자의 사진을 보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바로 이런 선거장풍경이 인민



이 주인된 내 나라,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차넘치는 공화국의 일면이라면 번역 《정권》, 석고 병은 사회에 대한 원한과 저주를 안고 각계층이 황거의 초벌을 들고있었던것이 피폐지역의 현실이다. 과연 어느 사회가 인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고 어느 사회가 반인민적인 사회인가를 용변으로 말해주는 판이한 두 모습이다. 나는 세상에 없는 가장 귀중한 표를 나라를 위해 찬성의 표를 바치던 그날처럼 참 좋은 이 제도를 위해 성실한 예극의 구슬땀을 바쳐갈 마음을 안고 출근길을 아꼈다. 김경호

총련의 역할 - 일심단결

오늘 총련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애국애국의 한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하다면 총련이 그토록 위력한것은 무엇때문인가.

총련의 불패의 원의 원천

어느해인가 공화국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 대통령을 만나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총련이 훌륭하다고 부러워하는 대통령에게 해외동포들이 많다고 하여 저절로 그렇게 되는것이 아니라고, 총련과 같은 해외교포조직을 만들자면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첫째로는 핵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해외동포속에 지도핵심이 있기때문에 총련조직을 내오고 동포들을 묶어줄수 있었다. 둘째로는 조국에 강한 해외동포들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고있기때문에 조국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

통일과 단결의 원리

주제79(1990)년 9월 어느날 총련일군들을 만나시여 여러가지로 뜻깊은 가르침을 주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지금 정세는 총련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일심단결하여 동포군중을 묶어주고 그들의 애국적열성을 적극 동원하여 전반적인 애국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명은 단결이며 단결이 곧 혁명이라고, 나의 정치철학은 통일과 단결의 원리라고 하시었다.

일심단결의 성세, 애국애국의 성동

주제111(2022)년 5월 28일 경에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 게 력사적인 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지》를 보내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중대한 투쟁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을 일심단결의 성세, 애국애국의 믿음직한 성들로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하시었다.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을 열어주시어

주제41(1952)년 12월 2일은 총련과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다. 바로 이날과 더불어 제일동포들이 재생의 광명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사대와 민족혁명주의의 진창에 깊숙이 빠졌던 제일조선인운동은 자기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고 비로소 올바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던것이다. 당시로 말하면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이날도 최고사령부에서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신공세》기도를 짓부시기 위한 명확한 작전을 펼쳐가고계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덕수를 비롯한 애국적인 제일조선인 활동가들이 파견된 련락원을 만나게 되시었다. 일본을 떠나 홍콩, 상해, 베이징을 거쳐 수만여리길을

달려온 련락원이 안고온 소식은 제일조선인운동을 지도한다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 제일조선인운동이 존망의 위기에 놓이고 제일동포들이 생존권마저 빼앗기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있다는 참담한 소식이었다. 제일동포들의 비참하고 애절한 모습을 가슴아프게 그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속과 근엄한 안색으로 지금 제일조선인운동이 조선혁명을 외면하고 일본혁명을 하고있는데 그것은 제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가갈 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일조선인들로 말하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제 나라 땅에서 살수 없어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이거나 징병, 징용에 걸려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더우기 오늘의 제일조선인들은 지난날처럼 나라없는 망국노이거나 《무국적인》이 아니라 자주독립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

한 해외공민들이다. 제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살고있다고 하여 자기 조국을 외면하게 되면 그것은 조선사람의 근본을 저버리는것으로 된다고 교시 하시었다. 계속하시여 제일동포들의 투쟁방법의 부당성과 제일조선인 운동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명철하게 지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일조선인들은 공화국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조국을 옹호하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하며 자기의 민족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가갈 길을 다시금 환히 밝혀주시었다. 제일조선인운동은 공화국정부의 지도밑에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제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고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 들어섰다.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유훈을 불멸의 기치로 추켜들고 제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국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어 새시대 총련건설의 휘황한 설계를 펼쳐주시었다.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 영원히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주체의 길, 애국애국의 길만을 걸고갈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이다. 리일 현

이 좋고 소리가 맑고 부드러웠다고 하면서 이것은 평상시 소조활동의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민족악부에서는 독주,

시켜나갈 결심, 간도대지진의 력사 등 어렵고 힘든 주제들을 작품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 성적이 발표되고 열렬한 환호와 박수속에 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대표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시상식에 이어 우수한 작품들이 울렸다. 이날 일본 각지에서 모은 출연자들과 학교관계자들, 학부모들을 비롯한 수많은 동포들은 학생들의 열정넘친 무대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를한 무대를 펼친 이들을 축하하였다. 오사카조선중고급학교 무용부는 우수작품발표모임무대에

재일조선학생들이 펼친 꿈과 열정의 무대

이번 대회는 정연대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것으로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대회 중, 고급부의 10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성악, 민속악, 양악기, 무용의 근 180개에 달하는 작품들에 출연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11월 2일 도교조선문화회관에서는 전체 출연자들이 모인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강연심사위원장이 부분별 평가를 하였다. 심사위원장은 성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았으며 학교마다 차이가 기본적발성

이어서 성적이 발표되고 열렬한 환호와 박수속에 각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대표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시상식에 이어 우수한 작품들이 울렸다.

이날 일본 각지에서 모은 출연자들과 학교관계자들, 학부모들을 비롯한 수많은 동포들은 학생들의 열정넘친 무대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조선학생이라는 긍지를 안고 동무들과 함께 계속 한길을 걸어나가겠다는 결기가 담겨진 창작군무 《한길-꽃이 걸어가리》를 울렸다. 한이명학생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무대에 설수 있게 된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응원해주고 사랑을 돌려주시는 많은분들의 덕분이다. 귀중한 무대에 서게 해준 동포들에게 감사의 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이 무었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습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최악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피리지역에서 악명높은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7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기나긴 나날 《보안법》은 동서고금에 없는 사상최악의 파쇼악법, 회색의 인권탄압악법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파쇼악법이 살판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8.15이후 피리지역에서는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민족분열, 북침전쟁책동을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이에 당황장조한 친미사대분자들이 각계층을 탄압하고 파쇼와 분열을 지속시키기 위해 1948년 12월에 고안해낸것이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본딴 《보안법》이었다. 이후 《보안법》은 여러차례의 개악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유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짓밟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보안법》은 선진사상의 연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응당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를 물론 인륜도덕과 인간의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말살하는 악법이

다. 특히 《보안법》은 공화국을 적대시하면서 민족분열을 영구화하고 반공화국대결을 제도화하기 위한 분열과 대결의 법적장기이다. 력대 피리통치배들은 이 전대미문의 악법인 《보안법》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 반인민적악정을 일삼으면서 그에 장악으로 되는 세력을 가지없이 탄압하였다. 조항들의 내용이 그지없이 독소적이고 애매모호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불리우는 이 악법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그 얼마인지 모르며 그 수는 헤아릴수 없을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오늘 사대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한 윤석열적폐당은 반인민적악법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각계층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지난해 6월과 7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출판보급한 《민족사랑방》, 《통일시대연구원》의 진보적인 언론인들과 학자들이 《보안법》위반으로 검거되고 감금투옥당하고있다. 피리지역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역적폐당이 도리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걸고들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실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망동이다. 오늘 피리지역의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로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정부)에 끝까지 대항하겠다》, 《공안통치를 부활하려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계에 대한 보수 집권세력의 정경망동을 규탄한다》, 《보안법을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윤석열적폐당의 파쇼탄압책동에 단호히 맞서싸우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 파쇼와 반인민적악정에 매달리는 윤석열적폐당을 비롯한 반적폐당에게 차례질 것인바 민심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 본사기자 림광훈

조선은 잠정된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쇼통치기간 조선의 인적자원을 닦아내도록 학살하였다. 특히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과 같은 침략전쟁을 련속 도발한 일제는 조선청장년들을 대대적으로 징병제에 끌어들여 대대적으로 썩이기 위해 각종 형태의 범죄적인 악법과 제도들을 조작하였다. 그 가운데는 태평양전쟁발발후 일제가 《특별련성》제를 조작하여 수많은 조선청년들에게 《황군》의 총알받이, 《정신대》, 성노예 등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한 죄악도 있다. 《특별련성》제라는것은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방황하던 식민지 조선의 남녀청년들에게 일정한 군사훈련과 《기술교육》을 주어 그들을 징병대상자, 《정신대》 및 성노예로 체계적으로 키울 목적 밑에 고안해낸 악독한 제도였다. 일제는 1942년 10월 총독명령 제33호로 《조선청년특별련성령》(총 18개 조항)이라는것을 공포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26일에 《조선총독부령》 제269호로서 《조선청년특별련성령 시행규칙》(총 27개 조항)이라는것을 조작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42년 11월에 열린 내부부장관회의에서 《조선청년특별련성》들을 광범히 설치, 운영하기 위한 방도와 대책을 모의한데 이어 그해 12월 1일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조선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련성교육》을 전국적규모에서 실시하

였다. 조선총독부 고이소관자는 《조선청년중 (국민교육)을 받지 못한자에 대하여 일정한 (련성)을 실시하여 이 청년들로 하여금 장래에 건강한 국민, 건전한 병사가 될 자질을 배양시켜야 한다》, 《조선청년특별련성》도 징병제도의 준비공작뿐 아니라 로무자를 조직적, 규률적, 정신적, 능률적으로 훈련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고 떠벌이면서 조선청년들을 대대적으로 《조선청년특별련성소》에 끌어들도록 명명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지령에 따라 전국에 널려있는 《국민학교》와 부속건물들에 수많은 《조선청년특별련성소》들이 설치되었고 각도의 도지사들과 부, 군, 면의 관리들, 경찰들은 《련성》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들고다니면서 집집성노예로 체계적으로 키울 목적 밑에 고안해낸 악독한 제도였다. 10만 2 600여명에 달하는 조선청년들이 끌려갔다. 이렇듯 악독한 《교육》을 받은 수많은 조선녀성들은 일제에 의해 《정신대》, 성노예로 끌려가 갖은 고역에 시달리다가 낯설고 물결은 라향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악명높은 《특별련성》제를 조작, 운영하여 조선의 청년들을 그 회생물로 만든 일제의 죄행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실로 가혹하고 잔인한 국가적범죄였다. 본사기자 전영민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조선의 인적자원을 략탈한 날강도' (The Day of Looting Human Resources of Korea). The ad features a large vertical title, a central image of a book cover, and several smaller images showing people at a book launch event. Text includes '국기보안법 없는 세상을 향한 한걸음!' and '국가보안법폐지 대행진단 해단식'.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최악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The Worst History Cannot Be Hidden). The ad features a large vertical title, a central image of a book cover, and several smaller images showing people at a book launch event. Text includes '피리지역에서 악명높은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7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and '국가보안법 폐지'.

《정치난쟁이》의 오명에서 벗어나달라

세계지도를 보면 일본은 대륙에서 떨어져나간 네개의 돌조각으로 보인다.

마치 실체는 21세기에 있지만 정신세계는 과거시대를 방황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문명세계에서 쫓겨난 일본의 처지가 그대로 반영된 듯하다.

얼마전에도 일본은 괴뢰법원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배상문제에서 피해자들에게 손을 들어주었다고 하여 《극히 유감이고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댔다.

더욱 꼴불견것은 일본의 무성것들과 언론들이 저저마다 나서서 《국제법위반》이니, 《이미 해결된 문제》라느니 하고 떠벌인것이다.

역시 겹겹이 덮어주고 하는 괴뢰치와 과거를 덮어놓고 부정하는 후안무치는 일본특유의 기질인 모양이다.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압치하여 성노예로 삼은 일제의 죄악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이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 간혹한 삼나라자들은 《자발적인 매춘》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두벌죽음을 강요하는 정신적테러를 감행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의 하나였던 도이칠란드는 오래전부터 나치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사과와 배상을 일관하게 진행해왔다.

또 국가지도자들이 자국과 다른 나라들에 안치된 희생자들의 추모비와 수용소 등을 찾아 사과와 반성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과거 일제의 대륙침략을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으로 미화하고 일본군성노예문제를 《군부의 잘못》으로 돌리치며 불과 몇분

을 던져주고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환성을 지르는 삼나라것들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 무슨 《국제법》을 운운하였는데 1968년 유엔총회가 전범자들과 인류를 반대하는 범인들에게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별협약을 채택한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사죄하는것이 정상인간의 사고일진대 퍼비린 죄악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이 없는것으로 하여 세인은 삼나라것들을 《정치난쟁이》라고 지탄하고있는것이다.

이 《정치난쟁이》들의 육체는 21세기에 살고있지만 지성도는 《훈도시》를 차고 《닛폰도》를 휘두르며 도적질만 일삼던 중세시대에 머물러있다.

삼나라에 먹물것이 떨어지면 조선반도와 그 일대에 무리로 기여들어서는 닥치는대로 불태우고 빼앗고 살륙한 조악한 왜구들과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서슴없이 떠벌인 군국주의자들이 바로 일본의 조상들이었다.

도적질과 살륙에 이골이 났던 왜구와 군국주의의 후예들이 오늘날은 조상들이 쫓겨난 대륙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리면서 다 같이놓은 재침의 칼을 휘두를 기회만 노리고있는것이다.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문명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지향에 부합되지 않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인류문명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는것이다.

죄악을 심고 덕의 열매를 따먹을수는 없는 법이다.

일본이 죄악과 수치를 모르고 랑심과 도덕을 배울줄 모르면 언제가도 《정치난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전쟁조장, 평화파괴 윤석열을 탄핵하자!》

피뢰지역에서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의 문어구에 몰아가고있는 윤석열역도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총폭발한 속에 제66차 초불집회와 시위투쟁이 11월 25일 서울에서 광범히 전개되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속에 전쟁대결장, 사대매국노인 윤석열역도를 기어이 탄핵시키기 위해 높이 쳐든 분노의 초불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꺼질줄 모르는 활화산마냥 더욱 세차게 불타올랐다.

《탄핵으로 평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역도가 미국, 일본과 공모하여 핵전쟁불장난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다 못해 그동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해버렸다고 폭로규탄하면서 미일과의 핵전쟁동맹강화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언제 군사적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여 민중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역도야말로 민중모두의 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집회에서는 《윤석열탄핵으로 평화를 지키자》라는 제목의 격문이 랑독되었다.

격문은 윤석열이 전쟁위기를 조장하고있는것은 민중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중대범죄행위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하루빨리 몰아내는것이 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탄핵이 평화다!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남북합의 파괴 전쟁폭주 윤석열을 탄핵하자!》, 《언론쿵데타 여론공작 윤석열을 탄핵하라!》, 《민생파괴 호희의유 윤석열일당 몰아내자!》, 《도도작 국정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강제동원관결 부정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얼마전 괴뢰야당사이에서는 이런 실적이 오고 갔다.

《국민의 힘》이 최고위원직에 새로 한명을 교체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 이를 두고 《《국민의 힘》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김석기같은 사람을 최고위원직에 앉혔느냐.》고 비난을 퍼부은것이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었다. 김석기로 말하면 2009년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하면서 주력강제철거만행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며 철거민들을 불에 타죽게 만든 《통산참사》의 진압책임자였다. 그때 리명박역도가 이것때문에 살인《정권》으로 낙인되고 여론의 모멸을 맞은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하필 플라플라 이런 살인《정권》의 하수인

을 여당의 최고위원직에 앉혀놓았으니 야당이 그런 말을 할만도 하다.

그리고보면 살인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한 《국민의 힘》이 어떤 집합체인가 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한것이다. 민중의 피로 두손을 적셔온 살인정당이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범죄집단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가관은 야당한테 한대 얻어맞은 김석기라는자가 거꾸로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리명박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앉혀놓느냐.》라고 말대포를 쏘는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정계무대에 전당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권력사관군들이나 모여 욕설거리니 괴뢰지역에서 찍하면 울러나오는 민심의 소리가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이다.

그 대표적인 표본으로 지탄을 받는것이 다름아닌 《대통령》모자를 뒤집어쓴 윤석열역도이다.

소시적부터 《골목대장》노릇을 한 기질로 서민들을 《폭력배》라 때려치는 망나니,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고 친년숙적을 《혈력의 동반자》라 개여올리는 매국역적, 화약내로만 숨을 쉬는 돌도 앉는 전쟁광...

괴뢰사회에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자가 《대통령》노릇을 하고있는가.

하기에 윤석열역도를 선택했던 사람들까지도 《천하의 재앙덩이》라 저주하며 퇴진투쟁의 조불을 들었으리라.

본노한 민중의 이 초불은 들불처럼 타번져 악의 소굴 《통야대》를 통째로 불사르고야말것이다.

한복순

제 뒷에 치운 정치무능아

이전 《정권》의 《균형외교》를 시비하였던 친미친일을 팔자로 한 《3자공조》의 강화로 주변나라들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되었고 바로 이러한 맹목적인 사대굴종외교때문에 《《정부》의 외교력량이 미국의 대외정책 추진도구로 전변되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를 맞는 처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비명이 쏟아져나오고있다.

괴뢰 각계층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도대체 나은것이 무엇인가, 이르고도 남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단죄의 책추진도구로 전변되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를 맞는 처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비명이 쏟아져나오고있다.

괴뢰 각계층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도대체 나은것이 무엇인가, 이르고도 남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단죄의 책추진도구로 전변되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를 맞는 처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비명이 쏟아져나오고있다.

괴뢰 각계층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도대체 나은것이 무엇인가, 이르고도 남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단죄의 책추진도구로 전변되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를 맞는 처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비명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윤석열역도가 온 한해 해외나들이를 하다못해 이달에 또 해외로 간다고 한다.

문제는 녀편네까지 끼고 해외나들이에 랑진한 돈이 수백억원으로서 이전 집권자들보다 두배, 세배 더 많다는것이다.

그 돈이면 집없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어도 될것이라는것이 민심이고 여론이다.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로 하여 끼니를 보장하는것도 걱정이고 눈물인데 역도는 그들의 피땀을 짜낸 혈세를 흥청망청 해외나들이에 체부

를 삼긴것을 비롯하여 경제를 외국자본의 배만 불리워주는 예속기업, 하청기업으로 전락시키고 미군수독점체

효력이 없는 종이장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우기 해외에 나가면 반공화국대결장만 늘어놓고 막대한 혈세를 퍼주면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첨단무장장비들을 부지런히 끌어들이고있다.

괴뢰사회에 《돈먹는 하마》라는 말이 있는데 서민들의 혈세를 강물 퍼서먹는 윤석열역도야말로 《혈세먹는 하마》가 아니겠는가.

전 명진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

최근 윤석열역도가 괴뢰지역에서 이른바 《3대판변》 단적으로 불리우는 《한국자유총련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 《마르제살기운동중앙협의회》를 적극 밀어주고 있어 사회적비난거리로 되고 있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후 《3대판변》 단적으로 우두머리들을 극우분자들로 교체하고 이 단체들에 역대 집권자들이 지금해오던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반면에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은 《부패척결》의 미명하에 대폭 삭감하여 민심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에 대해 어느한 언론은 《《3대판변》 단적으로 보조금공약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조금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는 없었고 《감사원》도 지적사항이 없다. 량대로 총에 회계고시를 겁박하던것과 비교된다.》라고 폭로하였고 또 다른 언론도 《《건설재정》을 강조하며 다른 민간단체들의 보조금을 삭감하는것과 대조적이다.》라고 비난하였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역도가 직접 괴뢰집권자로서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자유총련맹창립 69주년기념식》에 참가하였으며 11월에는 《바르제살기운동전국위원회》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도 낯짝을 들이키는 등 이 보수단체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다면 윤석열역도가 어찌서 《3대판변》 단체들에 막대한 돈을 아낌없이 퍼부으며 관심을 돌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한 언론은 《《3대판변》 단체들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축사를 하고 격려하는것은 단체의 세력파시와 엄청난 도움이 된다.》, 《《총선》을 앞두고 이들 관련단체가 여당을 위해 기여해줄것을 기대하는 눈치다.》라고 분석하였다.

간단히 말하여 보수세력속에 어지간히 영향력이 있는 그 보수단체들을 반역정체실현의 돌격대로 내몰고 레닌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게 하려는 흥심의 발로라는것이다.

지난 2016년 6월에 있는 《국회》의원선거때 《한국자유총련맹》떨기자들이 보수정당의 선거지원율음으로 돌아치고 박근혜역도의 탄핵당시에는 초불집회에 대응하는 맞불집회에 동원되어 갖은 망동을 다 부린 사실을 보여도 틀린 분석이 아니다.

바로 윤석열역도가 지난 6월 《한국자유총련맹》창립행사라는데 참석해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있다.》며 《리념정적》의 불을 지르자 보수단체들이 역도의 《색갈론》소동에 맞장구를 치며 날렸던것은 그에 대한 실증의 하나이다.

그러나 역도는 오산하고있다. 불의가 아무리 날뛰어도 정의를 이기는 못하는 법이다.

민심은 약질극우보수세력들을 내몰아 사회진반에 불의와 악이 더욱 횡행하게 만들려는 윤석열역도의 책동을 결코 용납치 않을것이다.

문은철